

교환학생 보고서

이름	한글	권지현	소속(학부/과)	메디컬 IT 융합공학과
파견 학기	19년 2학기		파견 국가	독일
파견 대학	하일브론 공과대학			

❖ 경험보고서는 이후 파견을 희망하는 학생들에게 소중한 자료가 됩니다. 성실히 작성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교환학생에 관심 갖게 된 계기 및 지원 동기

저는 다양한 사람을 만나는 기회를 가지고 싶어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영어라는 과목이 늘 지긋지긋하다고만 생각했었습니다. 휴학을 한 후 처음에는 영어를 취업을 위해 과목으로 시험으로만 여겨왔습니다. 하지만 시험이라는 과목으로 보지 않고 언어라는 관점에서 영어를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솔직히 처음에는 영어를 시험이 아닌 언어로 받아들이는 과정들이 너무 당혹스럽고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방식을 바꾸면서 언어로 접근하면서 언어라는 자체에 흥미를 느꼈습니다. 단순히 언어뿐만이 아닌 그 나라의 문화와 역사 관념에서 비롯된 언어 자체에 흥미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언어라는 자체에 흥미를 가지게 되면서 다양한 사람들과 소통하고 관계를 가지는 것, 조금 더 많은 다양한 언어를 배우고 싶은 것, 다른 나라의 문화를 체험하고 이해하는 것 등등 영어와 관련한 다른 것들에 대해 관심이 가게 되었고 지금 내가 학생으로서 이걸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생각하다보니 교환학생이라는 것을 깨닫고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 출국 전 준비 사항과 주의 할 점(상대교 서류준비, 비자발급 절차, 항공권 구입, 수강신청 및 기숙사 신청 내용 포함)

비자발급 절차가 독일에서 상당히 느리고 기다리는 시간도 길기 때문에 최대한 한국에서 만들어가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또한 저는 교환학생 중 다리를 다쳐 병원에 가게 되었는데 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때 영어가 가능한지 물어보시고 가능하다면 테어민을 잡고 진료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진료비는 병원에서 결제하지 않고 보험카드만 제시하면 됩니다.

첫날 하이브론을 올 때 Flix 버스를 탔는데 짐 도난 우려가 상당히 많고 연착과 취소가 잦습니다. 가격 대비 신경쓸게 많아 되도록 첫날은 기차를 타고 하이브론으로 오시는 것이 많고 여분의 여권사진과 서브 휴대폰을 챙기시는 것도 추천합니다. 교환학생들 중 휴대폰이 고장이 나거나 분실되는 경우가 있어서 서브 휴대폰을 가지고 가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수강신청은 학교에서 다 같이 신청하므로 한국인들과 같이 함께 듣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파견대학 소개(크기, 지리적 위치, 기후, 주변 환경 내용 포함)

도시가 프랑크푸르트 공항에서 3시간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날이 8월에는 30도를 자주 넘겨 더웠고 에어컨도 설치되지 않는 곳도 많았지만 겨울에는 서늘하고 비가 자주 내려 우산을 소지하고 다니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기숙사 근처에 공원과 마트가 있어 생활이 편리합니다.

■ 수업 및 학사 관련 사항(수강과목 포함)

저는 전공과목 2개와 독일어 과목을 선택하였는데 전공을 배우러 오는게 아니라 저와 같이 문화교환을 하시러 오신 것이라면 언어과목을 추천합니다. 독일어 영어를 제외하고서라도 이탈리아어 스페인어가 있어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을 만나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 숙소 및 거주 관련 사항(기숙사비, 생활비 내용 포함)

기숙사 화장실은 건식으로 물이 바닥에 고여있지 않게 조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방을 나가는 날 기숙사 담당자와 테어민을 잡고 검사를 하는데 이 때 단순히 정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침대 밑 냉장고 안 모든 곳을 청소해 놓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청소 불량으로 보증금 일부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대형마트등을 이용하면 일주일에 10유로 정도 사용했습니다. 물가가 싸 많이 구매를 해도 10~15유로 정도내에서 해결되었습니다.

■ 파견대학 국제팀 프로그램/서비스 및 교환학생 활동 소개

ASta에서 매달 진행하는 행사를 소개합니다. 크리스마스 기간에 독일의 뉘른베르크나 프랑스의 스트라스부르와 같이 사전에 신청하면 버스요금 5~15유로 사이의 요금을 내고 도시로 갈 수 있는 서비스 등이 제공됩니다. 또한 하일브론에서 행사하는 축제도 알려주시니 ASta에서 제공하는 메일을 자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 학교 부대시설 및 추천 하고 싶은 동아리

하일브론 공과대학은 동아리가 다양하지 않은 편입니다. 하지만 운동을 하고자 한다면 동아리가 아닌 어떤 요일의 시간대에 사람들을 모아 운동을 같이 하는 프로그램을 제공하니 학교 홈페이지 사이트를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 문화적 차이 및 향후 파견 학생들을 위한 TIP

수업이나 시험이 상당히 한국이랑 다른 편입니다. 모르는 것은 최대한 질문하고 도움을 요청하세요. 최대한 교수님들이 자세히 설명해 주십니다. 한국식 시험은 전부 외우는 것을 위주로 진행하지만 독일에서의 시험은 배운 것을 암기하는 것이 아닌 활용하는 쪽으로 진행되니 궁금한 점이 생기신다면 즉시 질문하시거나 메일로 문제를 보내시면 자세한 답장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어를 효과적으로 늘리고 싶거나 친구를 사귀고 싶다면 현지 교환학생들에게 같이 여행을 가자고 해보시길 바랍니다. 생각보다 거절이 적고 여행을 하는 동안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매주 수요일날 열리는 클럽에 가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곳에서 교실보다 더 많이 교류가 일어나고 친해지는 계기를 만들 수 있습니다.

■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통해 느낀 점, 배운 점

유럽에 대한 환상이 컸던 만큼 실망한 부분도 많았습니다. 인종차별에 노후화된 시스템, 일이 정말 느린 사람들 그리고 생각보다 영어가 되지 않는 유럽인들. 그렇게 전혀 다르기에 배운 점도 많았습니다. 내가 한국에서 했던 말들이 그들에게 인종차별이 되었다는 것을 깨닫고 느리기에 천천히 시간을 보내는 방법을 알게 되고 영어가 되지 않기에 짧은 독일말로 검색하고 배우려고 하면서 그들의 방식 또한 받아들이려고 했습니다. 초반에는 한국에서의 습관 몇 개를 버리지 못해서 힘들었습니다. 특히 미안하지 않을 때는 미안하다고 말하지 않는 것 습관적으로 내뱉던 미안이라는 말을 쓰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 기타(사진, 건의사항, 등)

문화교육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말은 독일인 친구한테 들었던 말이었는데 한국인들이 습관적으로 내가 영어를 못해 그래서 미안해라는 말을 너무 자주 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 말이 정말 좋지 않은 이유가 이 말을 내뱉는 순간부터 무시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인종차별이 독일이 심한 것은 아니지만 태도가 바뀌는 경우를 많이 보기에 서양국가의 문화에 대한 교육이 사전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